

# 광주~대구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실현될까

### 문대통령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공약 초미의 관심

### 도로공사 “노선 형평성, 유지·보수 어려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 담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 전면시행 여부와 그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통행료는 1만3200원(승용차 편도기준)으로 비용부담이 큰 편은 아니지만 요금이 무료화되면 당장 동서화합의 또 다른 기틀이 될 것이라 기대감이 커진다. 매일 광주~대구를 오가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11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집을 보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균형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광주~대구선, 동해선 무료화 추진 ▲전 고속도로 명절기간 무료화 ▲동계올림픽기간 영동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왕복 4차선으로 확장, 신규 개통한 광주~대구고속도로는 일 평균 통행차량이 3만 2000대 수준(2016년 1월)이다.

문 대통령의 고속도로 공약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광주~대구선·동해선을 무료화하면 다른 노선 이용자들이 ‘형평성’을 주장하며 무료화 요구에 나서는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무료화 노선에 따른 풍선효과로 다른 노선 이용 요금에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행료 수입이 줄면 통행량이 적은 노선의 유지·보수 예산을 감당할 수 있

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다.

경부고속도로 등 다른 고속도로를 타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광주~대구고속도로를 이용한 이용자 요금 처리 문제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의 부채가 26조원(자산 58조원)이 넘어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는 각오

로 유휴부지, 휴게소, 출자지분까지 다방면으로 매각을 진행 중이어서 요금 무료화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도 고민이다.

도로공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15년 광복절 전날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했다. 하루에 505만여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146억원을 면제받았다. 지난해 5월6일 임시공휴일에도 역시나 고속도로를 개방해 통행료 143억원이 면제됐다.

고속도로 일부 노선 무료화나 요금인하로 인한 통행료 수입감소에 대해서는 새 정

부가 어느 정도 재정적 뒷받침 방안을 마련해야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라 관측도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 부채는 공공기관 중 안정적인 편이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 없이 공약 실행에 대해 언급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서 “고속도로 관련 대통령 공약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고 진용이 짜인 후 대통령 공약 실행 및 시행 시기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고막손으로 만드는 주먹밥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을 1주일 앞둔 11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잔디광장에서 광주 썬키즈어린이집 어린이들이 효령노인타운 어르신들과 주먹밥을 만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1 | 해질 19:27 | 달뜨기 20:34 | 달지기 06:32

초록 세상  
새벽부터 비가 오다가 낮에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C)	18/23	19/24	20/25	21/26
광주	18/23	17/21	16/21	16/20
서울	18/23	17/21	16/21	16/20
대전	18/23	17/21	16/21	16/20
대구	18/23	17/21	16/21	16/20
부산	18/23	17/21	16/21	16/20
제주	18/23	17/21	16/21	16/20

시/도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동	남동~남	0.5~1.0	남동~동	0.5~1.0
남서	남동~남	1.0~2.0	북동~동	1.0~2.0
서부	남동~남	1.0~2.0	북동~북동	1.0~2.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20	03:10
	20:21	15:06
여수	03:49	09:47
	15:42	22:18

◇주간 날씨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	☁	☀	☀	☀	☀	☀
	13/24	12/24	12/24	12/25	14/27	14/28	15/29

## 비 그친 주말 나들이 하기 좋아요

12일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된다. 주말인 13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예상기온은 아침 11~16도, 낮 최고 21~27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12일 오후부터 밤사이 서해안 일부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이며 예상강수량은 광주·전남 5~10mm다. /전은재기자 ej6621@

## 세월호 4층 사람뼈 추정 1점 추가 발견

### ‘급변침 규명 열쇠’ 조타실 위성항법장치도

세월호 선체에서 이를 연속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뼈조각이 수습됐다. 또 4층 여학생 객실에서는 단원고 조은화 양의 가방이 발견됐다.

11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세월호 선체 수색 중 4층 선미 좌현 쪽에서 사람뼈로 추정되는 뼈조각 1점을 수습했다.

이날 뼈조각이 발견된 곳은 지난 10일 뼈조각 2점이 발견된 곳과 같은 4층 선미 좌현 쪽이다. 이 곳은 미수습자인 단원고 여학생 2명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다. 세월호 침몰의 충격으로 심하게 찌그러져 뼈와 유류품 등이 이동하지 않고 물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다인실과 가까워 추가 수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인실은 천장 하부 절단 작업은 이날 마쳤다.

수습된 뼈조각은 정밀 분석을 하기 위해 국과수에 보내질 예정이다. 국과수에 의뢰한 뼈조각의 DNA 분석 결과는 약 1개월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50분께에는 뼈조각이 발견된 근처에서 단원고 학생인 조은화 양의 가방이 발견됐다. 가방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학생증, 독서실 카드, 볼펜, 화장지 등이 나왔다. 옆으로 매는 작은 가방으로 은화 양이 평소 학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갑 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복원을 의뢰하기로 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세월호의 조타실에 진입해 수색하는 과정에서 GPS 플로터를 발견하고 확보했다. GPS 플로터는 세월호의 급변침 과정과 선체의 위치 및 움직임을 밝혀 줄 수 있는 장치로, 인공위성이 보낸 신호를 전자해도에 입력해 해도 상에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선박용 위성항법장치다.

하지만, 3년동안이나 바닷물 속에 잠겨 있던 GPS 플로터의 내부 기록 장치를 복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까지 수습된 뼈조각은 총 827점(사람뼈 추정 4점), 유류품은 1393점(인계 119점 포함)이다. /김현영기자 young@

## 제주서 야생 진드기로 첫 사망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제주에서 올해 처음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 M(79)씨가 증상이 악화해 9일 사망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에 거주하는 M씨는 최근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을 한 뒤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으며 입원 중 고열,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를 보였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가 전파하는 감염병으로, 잠복기 이후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38~40도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착한보청기

# 보청기

#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